

홈스펀과 베니션

파란 하늘에 하얗게 떠있는 구름을 보면 메리노 양이 초원에 산발되어 있는 광경을 생각해 한다. 추동용 옷감이라고 하면 양모옷감이다. 품질표시상 모에는 수모도 포함되어 있다. 모 중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양모이다. 양모 중에서는 메리노 울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동물의 털로는 헤어와 울이 있다. 헤어는 강직하고 크림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헤어만으로는 방직하여 실로 만들기가 어렵다. 또한 헤어를 섞어 만든 직물이나 편물은 헤어가 뽑혀져 나가 버린다. 울은 헤어의 밑에 밀생하는 가늘고 부드러운 크림프를 가진 털로써 방직하기 쉽고 부드러운 옷감을 만들 수 있어 울을 많이 사용한다. 메리노 울은 메리노 종의 양으로부터 채취한 양모이다. 슬픈 이야기이지만 메리노 울은 품종 개량을 하여 헤어는 발생하지 않고 흰색의 울만 생기도록 한 양모이다. 영국에는 영국종이라고 총칭되는 40여종의 유니크한 캐릭터를 가진 양이 있다. 체비엇, 도니골, 세트랜드, 하리트워드 등은 영국 양모를 사용한 옷감이다. 홈스펀이라던가 트위드 플라노 등도 오리지널은 영국 양모를 사용한 옷감이다. (야말화지(野末和志))

* 홈스펀(homespun) : 거칠고 딱딱한 모직물. 손으로 방직한 굵은 방모사(紡毛絲)를 사용하여 성긴 평직(平織)으로 제직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축융가공(縮絨加工)을 하지 않은 것이다. 소박하여 애용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이를 모방하여 섬도(纖度)를 고르지 않게 하고, 운치있게 자은 태번수(太番手)의 기계방직사를 사용하여 역직기(力織機)로 짠 모조품이 많다. 이 직물의 촉감은 트위드와 아주 흡사하므로 혼동되는 일이 많다. 트위드의 경우는 능직(綾織)이지만 홈스펀은 평직인 점이 다를 뿐이다. 용도는 여성용 코트·남성상의·운동복·실내장식품 등에 사용된다.

옛날에는 양모를 손으로 자아 실을 만들고 이러한 실을 손으로 제작하여 만든 직물이 트위드라던가 홈스펀이라고 부르는 모직물 옷감의 오리지널이다. 수방으로 만든 실의 굵기는 방모사의 굵기 정도이다. 이보다 더 가는 실은 방적기계에 의하여 실로 만들어진다. 이것을 소모사라고 한다. 양모사라던가 면사, 마사 등의 짧은 섬유를 자아서 만든 실을 방적사라고 한다. 방적사의 굵기를 나타내는 것이 변수이다. 변수는 숫자가 클수록 가늘게 된다. 바꾸어 말하자면 굵을수록 숫자가 작게 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트위드에 사용되는 수방하는 방모사는 2~3수의 단사로부터 7~14수 정도의 방모단사가 사용되고 있다. 20수 정도는 고급 방모 옷감이다. 24수 이상의 가늘기가 되면 소모사이다. 중변수인 48수 합사는 48수 단사를 2올 꼬아 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굵기는 24수에 상당한다.

세변수 72수 합사는 36수에 상당하는 굵기이다. 베니션에 사용되는 것이 이러한 굵기이다. 일반적인 옷감에는 20수 단사로부터 72수 합사가 사용되고 있다. 80수 합사로부터 120수 합사 등으로 극히 가는 실을 사용한 옷감은 고급, 초고급 옷감이다. 남성용은 52수 합사 정도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변수의 숫자가 같아도 면과 마와 양모는 굵기가 다르다. 여기에서 양모는 모변수라고 하고 면은 면변수, 마는 마변수라고 구분하여 사용한다. (야말화지(野末和志)) 물론 장섬유에는 데니어라는 섬도의 단위를 사용한다고 앞서 기술한 바 있다.

* 비니션(Venetian) : 사문조직(斜紋組織)의 모직물을 일컬으며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경사의 밀도가 위사의 약 2배이기 때문에 표면은 수자(繻子)와 같고, 또한 사문이 뚜렷하므로 수자무늬라고도 한다. 소모직물(梳毛織物)과 방모직물이 있고, 소모직물은 경사·위사에 소모사를 사용하여 짜서, 클리어컷 가공(직물 겉면의 조직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마무리 공

정)을 한 것이다. 방모직물은 경사·위사 모두 방모사를 사용하고, 제작한 후에 축융가공(縮絨加工)을 한 것으로 사문이 좀 분명하지 않다. 무지(無地 : 단일색으로 염색한 것)가 대부분이고, 신사복·슈트·스커트·춘추 코트 등에 사용된다.